

개 회 사

2017. 11. 14 (화) 09:30~09:4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먼 길을 오신

Katharine Braddick (캐서린 브래딕) 영국 재무부 차관보님,

Andrew Bailey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님,

그리고, 영국 금융인 여러분들의

訪韓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Financial Conduct Authority(영업행위감독청)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 참석해 주신

Charles Hay(찰스 헤이) 대사님, 신성환 원장님,

그리고 국내 금융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가

어느덧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새로운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국과의 금융 협력의 의의와
앞으로 포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새정부의 금융정책방향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지난 5월 출범한 새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거시적 목표하에
①소득주도 성장, ②일자리중심 경제, ③공정 경제,
및 ④혁신성장의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 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정책추진의 핵심가치로 선정 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2 -

즉,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중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도적 장애요인을 손질하고,
때로는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과거 양적팽창과 높은 수익성을 중시하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금융 부문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포용적 금융’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을 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이처럼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라는 기본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들을
근대 금융의 발상지이며, 금융선진국인 ‘영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오늘 행사는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 3 -

3. 영국과의 협력의 의의

영국은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금융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01년 지어진 **런던증권거래소***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역전히 **유럽 최대의 거래소**로서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유가증권 거래를 표준화
하기 위하여 거래소 설립

17세기 무역 정보의 중심지였던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현대 보험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전세계 보험 중심지**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 선장과 선주들이 자주 찾던 로이드 커피하우스에 무역정보가 모이고
1688년부터 보험을 팔기 시작하면서 '로이드 보험조합'이 탄생

현재에도 영국은
국경간 은행대출, 국제 채권거래 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 4 -

나아가, 영국의 금융산업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핀테크 관련 거래규모는
매년 70% 이상 증가했으며,
투자규모 또한 매년 50%가량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정책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핀테크 사업 전담 지원부서인
Innovation hub를 운영하여
핀테크와 관련한 신규 상품 출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주요 핀테크 시장 규모('15년) : (뉴욕)56억£ (캘리포니아)47억£ (영국)66억£

- 5 -

영국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한국의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에 있어
가장 유용한 선례(benchmark)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경쟁력을 갖춘 영국은
한국에게 최선의 금융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4. 한-영 금융협력 포럼의 성과와 발전방향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한-영 금융협력 포럼은
양국 금융당국과 금융인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충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영 금융협력포럼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매년 30개 이상의 기관에서
100여명이 넘는 금융인들이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성과들도 도출되었습니다.

양국 당국간 MOU 체결*을 통해
감독 관련 정보공유가 용이해졌으며,

* PRA, 영란은행('14.4월)

- 6 -

‘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을 통해
국내 은행의 영국 영업확대 및 운영비용 절감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둘수 있었습니다.

* PRA('16.7월)

또한, 양국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정책,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대형은행 감독방안 등
양국의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를 대비하여
①보험 및 연기금의 미래와
②금융혁신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은
구조적, 시대적으로 거스를수 없는 흐름으로,
全 금융 업권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포럼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 7 -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년 금융협력포럼을 통해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넘어

상시적, 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이어

앞으로는 금융포용, 소비자보호,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책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금융,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분야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6월 발표된 FSB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사이버 위협 및

거시금융 리스크 등에 대해

국가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17.6월)

- 8 -

최고의 금융중심지인 영국과

세계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공조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할수 있는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양국간 금융협력 관계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내년 2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은

“Passion. Connected”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열정이

올림픽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포럼도 동계 올림픽과 같이

양국 금융인들의 열정이 하나로 모이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9 -

더불어, 오늘 이 포럼이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의
명실상부한 민-관 금융협력 채널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